

‘봄의 향연’ 광양매화축제, 모든 준비 마쳤다

내일부터 열흘간 ‘광양 매화, K-문화를 담다’ 주제 차 없는 거리·무료 셔틀버스·대중교통 정보 등 제공

제23회 광양매화축제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핵심 콘텐츠와 축제장 볼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양시는 개최 이래 최초로 유료로 전환한 만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인근 교통편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광양시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광양 매화, K-문화를 담다’를 주제로 광양매화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관광객을 맞는다.

축제는 8일 오후 2시 매화문화관 앞 주무대에서 광양(매화), 신안(난), 함평(국화), 담양(대나무) 등 4개 지자체 축제 협업 선포식으로 화려한 막을 연다.

사군자 테마 4개 지자체 협업으로 봄 대표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광양매화마을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는 매화랑 1박2일, 매실 하아볼 체험, 옷소매 매화끝동, 나만의 공간: 매화나무 아래에서 등 광양매화축제의 정채성을 담은 콘텐츠가 대거 도입된다.

또한 삼진강 뱃길 체험, 삼진강 맨발 걷기, 광양맛보기 등 광양매화축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풍성하다.

특히 시는 오고 가는 길까지 즐거운 광양매화축제를 관광객에게 선사하기 위해 차없는거리, 주차장, 무료 셔틀버스 운영, 대중교통 정보 제공 등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역 경제에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개최 이래 최초로 입장료를 도입하고 차 없는 거리를 시도한다.

버스 외 일반차량 이용 방문객은 축제장 내 차량 진입이 통제되며 둔치주



광양시가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다양한 매화마을 일원에서 제23회 광양매화축제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차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사진은 광양매화마을 전경. <광양시 제공>

차장에 주차 후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20분 가량 이동해야 한다. 반면, 대형버스는 도시주차장(삼진교

방면), 삼진주차장(남도대교방면) 등에 주차할 수 있다. 특히 구례 방면에서 오는 일반차량은

축제장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둔치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동 방면으로 남도대교를 건너 신원로타리 쪽

으로 주행해야 한다.

둔치주차장과 매화축제장을 오가는 무료셔틀버스 운행편으로 ▲‘둔치주차장→축제장 방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축제장→둔치주차장 방향’은 오전 6시1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축제 전 기간 운행된다.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양터미널, 중마터미널, 순천역, 순천터미널, 하동터미널, 광주유스퀘어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광주 유스퀘어를 출발해 광양읍을 경유하는 고속버스는 오전 9·10·11시에 출발하고 축제장에서 광양읍을 경유해 유스퀘어로 가는 버스는 오후 2·3·4시에 출발한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광양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대거 마련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며 “해마다 환상적인 봄 풍경을 연출하는 광양매화마을을 축제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2030 고령 인구 10만 달성’ 추진동력 강화

인구증대 목표 달성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고령군이 군정 목표로 세운 ‘2030 고령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추진 동력 강화에 나섰다.

6일 고령군에 따르면 최근 고령보청 문화박물관에서 ‘2030 고령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읍면 인구정책 담당자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16개 읍면 인구행정팀장과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고령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인구증대 방안과 읍면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워크숍에서는 송민철 인구정책실장의 ‘2030 고령 인구 10만 달성’ 비전과 전략 설명에 이어 각 읍면 연도별 인구증대 목표 등을 제시했다.

특히 ▲1읍면 1특수 시책 추진 및 민간 협의체 구성 ▲군민 주도의 진입차 유치 시책 활성화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고령애(愛) 주소 갖기 등 읍·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들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금산면 귀농어촌인 친(親)친(親)데이 운영 ▲대서면 대서올래(ALL

來) 챌린지 ▲포두면 청년 꿈 이름 마을 등 읍면별 우수시책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영민 군수 주재로 진행된 토론 시간에는 각 읍면 인구행정팀장의 인구증대 계획 보고와 읍면별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또한 인구증대 목표 달성 읍면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됐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팀장과 담당자에게는 인사 가점, 승진 우대, 희망 근무 부서 배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인 포상금은 최대 100만원, 읍면

단체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공영민 군수는 “올해부터 읍면 인구증대 목표를 구체화하는 등 일선 읍면 행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인구 유입·목표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귀농어 귀촌인 유치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마을 주도의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정착시켰고, 올해는 ‘전입차 유치 유공 군민(출향인)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조만간 군의회 협의 및 조례 개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최봉환 기자



장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1억2천만원 투입...29일까지 신청

장성군은 6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사업비 11억2천만원을 투입해 5등급 200대, 4등급 200대, 건설기계 5대 총 450대 물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중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티어-1(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한편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장성군을 사용 본거지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정기 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단, 정부 지원

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5등급 차량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장성군청 환경과에 직접 방문·우편 접수 또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차등을 두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과 지방세 등을 먼저 완납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장성=김문태 기자

순천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선정

순천시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하는 ‘2024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면서 해당 지역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도시로 반려인·비반려인, 반려동물까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곳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24억원을 투입해 전문가 컨설팅을 거친 후 2027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순천에 펫 낙원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거점으로 순천시 전역에 순천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인프라를 확대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자원 활용 펫관광 콘텐츠 개발, 체류형 펫관광을 위한 수용태세 구축,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등이다. /순천=정기 기자

담양 ‘군민의 상·명예군민증’ 후보자 접수

군정발전 기여 대상자 29일까지 추천

담양군은 “오는 5월3일 제45회 담양군민의 날을 맞아 군민의 상과 명예군민증의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군민의 상’ 후보자는 담양 출신이거나 군민으로서 10년 이상 지역 내 거주자로 추천 분야는 ▲지역개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체육진흥 ▲산업경제 등 5개 부문이다. ‘명예군민증’은 지역개발과 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

한 자로 외국인, 해외교포, 다른 지역 출신 인사 등이 추천 대상이다.

군민의 상은 부문별로 1인 이내, 명예군민증은 인원 제한이 없다. 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자는 담양군의회 의장, 읍면장, 각 기관단체장, 개인이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는 세대주 1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명예군민증 후보자 추천자는 각 기관단체장 또는 실과단체장, 읍면장, 개인이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20세 이상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추천 서류는 담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2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담양군청 행정과 행정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정과(061-380-31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규 행정과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화합 등 공적으로 군민의 표상이 될 후보자가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의 상은 1980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137명, 명예군민증은 2004년부터 시작해 총 4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흥군, 경관조성 녹지관리 본격 추진

총사업비 6억 규모...경관관리 인력 2개반 운영

장흥군은 6일 “최근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경관조성 근로자 2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녹지관리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

총사업비 6억원 규모의 이번 경관조성은 탐진강권 관리 15명과 가로경관 관리 9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수목 경관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 관광 도시 이미지를 만들 계획이다.

발대식에서는 각종 산림 장비 작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현장 대응

등의 직무 교육을 시행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남진 토요일, <장흥=노형록 기자

